

간사자격청구논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YMCA운동

- 수원YMCA 교복물려주기운동사례를 중심으로 -

수 원 Y M C A
라 영 석

지속가능발전목표와 YMCA운동

- 수원YMCA 교복물려주기운동사례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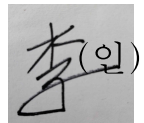
이 논문을 간사자격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 월

수 원 Y M C A
라 영 석

라영석의 간사자격 논문제출을
동의합니다.

논문 멘토 : 이광희 간사(수원YMCA 사무총장)

Handwritten signature of Lee Kwang-hee in black ink, enclosed in a grey rectangular box.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and includes the Korean characters '이(인)' in parentheses to the right of the main signature.

라 영 석 의 간사자격 논문을 인준함

2022년 5 월 일

심사 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자격심사위원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과제	4
II. 지속가능발전목표와 YMCA운동	5
1. 지속가능발전목표	5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5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내용과 특징	6
3)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배경 및 과정	9
4)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11
2. YMCA의 생명평화운동의 의미	15
1) 정의와 평화가 중심	15
2) 지속가능한 공동체성	16
3) 비시장적 가치의 활성화	16
III. 교복재사용	18
1. 교복에 대한 개념정리	18
1) 교복이란	18
2) 우리나라 교복의 변천사	19
3) 교복과 YMCA	22
2. 교복재사용의 필요성	23
1) 청소년의 특성과 교복만족도	24
2) 교복가격의 변화	25
3. 교복재사용의 현황	25
1) 교복재사용시장 실태	25
2) 교복재사용의 경험	26

IV. 교복물려주기운동	27
1. 민간주도형 교복물려주기	27
1) 지역사례	27
2) 수원YMCA 사례	27
2. 행정주도형 교복물려주기	29
1) 경기도교육청 교복은행의 실시	29
2) 경기지역 교복은행 현황	31
3. 교복은행 사례분석	32
1) 교복은행 개요	32
2) 수원 교복은행	33
3) 수원교복은행 참여자 설문분석	34
4. 수원교복물려주기의 성과와 과제	38
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한 YMCA교복물려주지운동 성과	38
2) 교복물려주기운동 과제	41
V. 결론	43
※ 참고문헌	45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6월 22일 제42차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회에서 개정)

한국YMCA목적문에 기록한 것 같이 YMCA운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민중들을 위한 일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즉,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 일하며, 이 땅에 생명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 YMCA는 먼저 그 지역에서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YMCA는 세계 120여 개의 국가에 조직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과 더불어 세계적인 단체이다. 우리나라도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시작으로 120년의 역사를 향해가고 있다. 한국YMCA 운동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정신을 담은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애국계몽운동, 일제 강점기 독립 만세운동과 신간회 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근대화운동, 현대에 들어와서도 청소년운동, 시민사회운동, 사회교육운동, 생명평화운동 등 수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YMCA 운동의 포괄성과 개방성,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YMCA는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지역의 젊은이들과 더불어 공부하고, 훈련하고, 소통을 통해 자신을 계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이러한 YMCA 운동적 과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환경과 인권, 빈곤 등에 대한 사회문제가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UN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교육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YMCA가 어떠한 운동을 펼쳐내고 펼쳐 나가야 하는지 활동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중 수원YMCA가 지역에서 실천해온 교복 물려주기 환경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매일 먹고 입는다. 의식주 생활을 위해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생활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중 의생활과 관련된 환경 문제는 의복 소재인 섬유를 생산, 가공하고, 의복을 만들고 유통, 사용하면서 세탁,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이종순 등, 2009). 또한 최근 ‘패스트패션’ 경향으로 유행에 따라 쉽게 사고 쉽게 버린 결과, 섬유와 의복의 대량 생산과 과소비는 의류 폐기량을 증가시키므로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의류의 과소비를 줄이고 재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특히 교복은 중,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친근한 의복이다. 청소년기에 의복은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복은 또래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부여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빈부 격차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고, 학생답게 행동하도록 한다(김용숙, 2002; 신희선과 오경화, 2009).

그러나 교복은 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유행 감각에 뒤처지고,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기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치수가 맞지 않거나 활동하기 불편한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교복 만족도는 그리 좋지 못하다(이연순 등, 2009; 이지민 등, 2009).

만약 교복 재사용이 활성화된다면 학부모의 가계 부담이 덜어질 수 있고, 학생들에게 교복 재사용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류를 재사용하는 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수원YMCA가 실천한 교복 물려주기 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교복 재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사용 교복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등 바람직한 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공유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같이 ‘지속가능성’은 많이 중시되는 주제이다.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에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 국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통해 지구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호로서 지구공동체에 던져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환경, 사회 경제의 구조적 시스템의 목표를 바탕으로 한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소개하고,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복지, 협치 등과 관련된 목표와 한국YMCA 목적문에서 언급하는 생명평화 가치를 시민과 함께 구현하는 현장중심의 관점에서, YMCA 시민운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원YMCA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정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수원YMCA 진행하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실천 사례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관련하여 하나의 실천 활동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과 과제

YMCA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1997년 IMF의 국가부도 위기 사태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의 형태를 점검하고 자원절약의 실천 활동에 대한 고민 속에서 YMCA 등대생협 회원들이 함께 논의를 통해 나온 행동이었다. YMCA 등대생협은 1998년 2월 안양 평촌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시작으로 안양YMCA 녹색가게의 재사용과 재활용 운동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수원YMCA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2007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안양YMCA와 마찬가지로 1998년 시작된 수원YMCA 녹색가게 자원봉사들의 재사용과 재활용 운동의 실천으로 시작됐다. 첫 시작부터 수원지역의 전체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수원YMCA의 회관이 위치한 영통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시작으로 2012년 상시로 교복 물려주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교복은행설립과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교복은행을 통한 교복 재사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YMCA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YMCA가 추구하는 생명 평화적 가치는 지금 중요시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활동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실천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 논문은 수원YMCA가 그동안에 진행해온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한국 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새롭게 재해석했다.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다른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실천 사례는 제외한다.

수원YMCA는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실천 이행에 있어 과거의 활동부터 현재의 활동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수원YMCA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진행한 수원YMCA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II. 지속가능발전목표와 YMCA운동

1. 지속가능발전목표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에너지문제, 인류의 조화로운 삶의 위기가 단순히 몇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인 새천년개발목표의 후속으로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015년 9월 전 세계 UN 회원국가들의 합의로 제시되었다(United Nations, 2015).

UN의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 논의 과정은 처음부터 하나로 통합된 것은 아니다. 크게 2010년 이후 UN 사무총장 주도의 개발 프로세스와 1992년에 출범했던 UN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가 2012년의 Rio+20 UN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세스가 두 가지 트랙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다가, 2014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9차 UN 총회에서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 초안으로 통합되었다(김태균, 2015).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193개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발 목표로 승인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들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Fig 1>. 특히 MDGs에 비해 사회발전 측면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적절한 경제적 발전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균형 있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는 특성이 있다.

SDGs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빈곤, 기아, 질병과 요구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생명체가 번영할 수 있는 세계,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평등하고 양질의 교육, 건강관리, 사회적 보호에 접근이 가능하며, 육체적, 정신적 그리

고 사회적 복지가 보장되는 세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교육을 독립 목표(SDG 4)로 강조하고 있으며, 보건, 경제성장과 고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등 다수의 다른 SDGs에서 교육 관련 세부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하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내용과 특징

첫째, 과거 MDGs 제정 과정이 유엔 사무국이 중심이 되었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는 유엔 회원국 중심이라는 점, 규범의 대상도 개도국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 다자간 이해관계를 포함하며 장기적 이행 평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국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MDGs의 8개 목표는 상호 연관성이 모호하여 목표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전략과 정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따라서 SDGs의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SDGs는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호의 3대 분야와 거버넌스 등 총 네 가지 국가 경영 차원을 통합하고 있다. SDGs는 빈곤 퇴치라는 MDGs 기조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 새로운 기조가 강조되었다. 이는 17대 목표에도 잘 드러나 있다. 목표 1(빈곤 종식)과 목표 2(기아 종식 등)에서는 빈곤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SDGs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보건과 건강 등을 다루는 목표 3에서도 개별적 보건 이슈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교육을 다루는 목표 4에서는 교육의 양적 성장보다는 교육의 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 전체 발달 단계의 모든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성평등을 비롯한 여성-여아의 권리와 역량 강화를 다루는 목표 5는 차별의 원인과 구조 개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SDGs 전체에 광범위하게(Cross-cutting) 반영되어 있다. 목표 7은 물과 위생을 넘어 수자원 관리, 폐수 및 수질 관리의 분야까지 통합적 접근 강조하고 있다. SDGs는 국내·국제적 불평등 감소, 남녀 차별 철폐 및 성 평등 달성부터 지속 가능한 산업화 추진,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 보호, 수자원·에너지 관리 향상 및 신재

생에너지 확대,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긴급 행동, 분쟁 지역의 평화 달성 및 세계 난민 수용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표 1>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교

구분	MDGs(2002~2015)	SDGs(2016~2030)
범위	사회발전중심	지속 가능한발전(경제,사회, 환경포함)
달성주체	극심한 빈곤중심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대상국가	국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문제
재원마련	공적개발원조(ODA)	국내 공공재원(세금), ODA,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

출처: KOPID 외(2016, 8쪽)

SDGs는 지속가능개발(SD)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발 이념을 가지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 주는 정책 수단 또는 프레임워크(policy tool/framework)의 역할을 한다. SDGs의 17개 목표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처럼 5개의 P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빈곤과 기아 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 발전은 사람으로, 일자리와 경제 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의 내용은 번영으로, 모든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변화 등 생태계 보호는 환경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은 평화에 함축되어 있다. 파트너십은 이행 수단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셋째, SDGs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문화가 다른 만큼 국가 정책 및 개발 전략, 국내 자원의 활용방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또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국, 도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이하 SIDs)등-에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17대 목표와 세부 목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민간 기업 및 UN 산하 기구들이 노력해야 함을 상기하며, 이행 과정의 점검에서는 UN 총회와 UN ECOSOC와 이들이 주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ICA, 2014).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내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 UN, 2015

3)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배경 및 과정

UN에서 SDGs에 대해 합의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단위, 지방 단위에서 SDGs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12월 국가에서 K-SDGs를 수립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수원, 경기도 시흥, 충남 당진, 인천시 남구 등이 SDGs를 수립하였다(환경부, 2018a).

수원시는 관련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작업반이 중심이 되어 시민 참여형으로 SDGs를 수립하였다.

수원시는 민선 5기인 2010년 이후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민기획단을 통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좋은시정위원회, 원탁토론회 등 공공 참여를 통해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2017년부터는 ‘시민 자치의 시대, 직접 민주주의 실현 지향’을 구체적인 시정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수원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와 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수원시, 2018b). 수원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과 행정 등 지역사회에서 공공 정책에 대한 참여 문화와 지역 역량이 형성되어 왔다. 또한 1997년부터 20여 년간 활동해 온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의제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전통을 수립함으로써 참여 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99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작성된 지방의제 21¹⁾의 작성 과정과 실천에 대한 평가를 통해 SDGs 작성 방향을 설정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²⁾의역할, 기능, SDGs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원 SDGs 작성 방향을 정하였다. 5가지 기본 방향으로 민관거버넌스형, 시민참여형, 모두를 위한 목표, 대중성 있는 목표, 이행력의 담보 등의 방향을 선정 하였다. 특히 SDGs 작성의 방향을 시민참여형으로 정하고, 시민참여방식으로

1)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지역 행동계획이다(지속가능발전포털)

2) 지역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실천하는 민관거버넌스 기구임. 수원의 경우 1997년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로 시작하였으며, 2015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SDGs를 작성하였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SDGs 작성 과정을 통해 “목표의 주인을 만들어가고, 시민의 인식과 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SDGs 수립과정을 설계·운영하였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7a: 8-10).

‘시민참여형’이라는 수원SDGs³⁾의 작성 방향은 수원SDGs의 특이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예를 들면 UN SDGs가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원은 10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수원형 SDGs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 10개 목표를 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형 SDGs 목표의 순서도 UN SDGs 와 차이가 있다. UN SDGs에서 ‘빈곤’이 목표 1에 배치된 것과 다르게 수원은 목표 1이 ‘에너지와 기후변화’로 시작한다. 이는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작성 내용에서도 목표별로 구성된 작업반의 문제의식과 고민, 시각과 사고방식이 10개 목표에 반영되어 목표마다 구체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교복 물려주기 운동사례에 해당되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복지, 협치 등의 목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표 3>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내용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분야	환경	경제	사회
	밝고 맑은 도시 환경	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	오순 도순한 사회공동체
목표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3) 수원SDGs는 목표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목표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목표 3.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 목표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과 먹거리, 목표 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목표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 행복 확대, 목표 8.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목표 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 10.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 등 10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목표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목표3	맑고 깨끗한 물 순환도시
목표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먹거리
목표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목표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목표8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목표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
목표10	자치를 통한 정의 · 평화 · 협치 구축

자료 : 수원시, 2018a: 223

4)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대응

수원시는 2010년 이후 환경 수도,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도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은 다양한 대체에너지 사업과 정책의 실시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화, 민간 부분에서는 나눔 햇빛 발전 건립, 주택 태양광 지원보급 사업,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햇빛 발전사업 등의 대체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실험이자 시도였던 ‘차 없는 마을 생태교통2013’ 이후 교통체계를 생태교통,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년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차량 보급, 전기버스 전면 도입, 미세먼지 없는 마을사업,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등을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총에너지소비 및 1인당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연도별 감축량 목표를 세워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있다. 수원시는 2005년 대비 도시인

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수원시는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원시 평균기온을 1도 낮추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섬지도 작성하고 폭염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곳에는 지붕과 옥상에 쿨루프 및 물을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도로에는 빗물 재활용수를 통한 자동물분사기 설치, 시민사회단체와의 100만 그루 나무심기, 녹지 확충, 도로 다이어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의 기후변화 대응은 시민참여와 민관거버넌스를 핵심 기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에 수원YMCA를 비롯한 민간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목표 1-1 에너지자립과 착한 에너지 생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시 전력 자립률 목표를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는 것이다. 2013년 22.8%로 가장 높은 전력 자립률을 보인 이후에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력 자립률이 높아지려면, 재생 가능한 형태의 전력 발전량이 늘고, 전력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수원의 경우 재생 가능한 형태의 전력 발전량 중에서는 ‘열병합 발전량’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0년에 비해 약 6배 높아져서 재생 가능한 형태의 전력 발전량은 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전력 소비량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전력 자립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전력 자립률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현재와 같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량을 현재의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율은 2030년까지 7%를 목표로 정했기(2030년 총소비량 6백만(MWh) 가정)때문에 소비량을 억제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2019년 0.6%)

세부목표 1-2 에너지 절약과 더 현명한 도시설계

수원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개선으로 에너지 소비절감 및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세부목표 1-3 에너지 복지실현

에너지 나눔과 복지공동체를 실현한다.

세부목표 1-4 생태교통 확산 및 대기질 개선

수원시 교통체계를 생태교통,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세부목표 1-5 탄소 배출감소

2030년까지 수원시 총 에너지소비 및 1인당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세부목표 1-6 도심 온도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2030년까지 수원시 평균기온을 1℃ 낮춘다. 특히 열섬 지도를 작성하고 폭염 취약 지역을 관리한다.

세부목표 1-7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참여 활성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하며 학교, 기관, 마을, 기업 등 기후행동공동체를 만들고, 기후행동공동네트워크를 추진한다.

(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인간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분야를 넘어서 복합적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보다는 이윤과 편리 중심의 소비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과소비와 과잉생산은 도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환경적 악순환을 고착시키고 있다. 플라스틱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설정하고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 중심’, ‘소비 절약 및 생활 쓰레기 감축’, ‘자원순환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제품은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 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의 62.3%(707.2톤/일)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7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 6-1 녹색제품의 구매 확대이다. 인간의 소비와 생산 활동은 공장제 산업생산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

의 소비와 생산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환경에 부담이 적은 녹색제품⁴⁾의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비활동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녹색장터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한다.

세부목표 6-4는 소비절약 및 생활 쓰레기 감축이다

수원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기준 매년 증감은 있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편의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 및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억제에는 한계가 있기에 억제 노력과 함께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

세부목표 6-5는 자원순환 인식증진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근간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인식변화에서 시작된다. 수원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센터를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적인 교육과 견학을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를 알린다.

(3) 복지, 건강, 교육을 통한 시민 행복 확대

수원시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지수 도입’, ‘최저생활보장과 빈곤 종식’, ‘건강서비스 증진과 예방적 관리’, ‘보편의무교육의 질적 심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

수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은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행정과 파트너 적 관계 속에서 주체적 역할을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 행정조직 중 주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동을 기준으로 주민들의 자체 및 협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며,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4) 녹색제품 :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5) 녹색장터(자원순환 나눔장터) : 나에게 쓸모없거나 필요의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장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협치 시정인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르네상스’, ‘좋은시정위원회’, ‘500인 원탁 토론회’, ‘시민자치대학’ 등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 정책에 참여하면서 민관 거버넌스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수원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약 120여 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의 필수 3요소로 수원시의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를 제시하고 있다(강은하, 2018: 92-93).

2. YMCA의 생명평화운동의 의미

1) 정의와 평화가 중심

한국YMCA의 생명평화운동에서는 ‘생명평화’를 생태운동이나 환경운동의 차원에서보다는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YMCA 주요활동’ 소개에서는 생명평화운동의 지속성을 짐작케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위 항목 “평화와 통일운동”에서는 “한국YMCA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100년의 선교사명으로 ‘생명평화’운동을 선언하였다.”고 하였고, “청소년 운동” 항목에서는 “YMCA는 예수의 복음과 삶을 따라 생명의 감성과 평화를 실천하는 자발적인 운동체”라고 하면서, “정의에 기초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YMCA’의 별칭이 “생명·평화의 바람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학YMCA” 항목에서는 대학YMCA를 “생명·평화·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라고 소개하였으며, “시민운동” 항목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제 연대” 항목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감수성을 가지고 생명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와 상호 연대하고 협력”한다. (김재명, 2021)

이러한 주요활동의 설명에서는 생명평화운동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만, ‘생명평화’는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기보다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정의와 평화를 중심에 두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모순이나 권력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기의 존재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고스란히 전달하기도 한다.

평화는 먼저 자기와의 화해에서 출발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어지는 술한 갈등과 폭력적 상황의 뿌리를 자기 안에서 직시하고 치유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상실해 온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작게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생명평화운동이다(유현석, 2016: 6).

그래서 수원YMCA 시민사업 중 하나인 교복물려주기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환경을 잇는 활동의 실천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이다. 그것을 통해 자원의 재사용을 실천하는 환경적 측면과 자원을 통한 이득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평화의 도구인 것이다.

2) 지속가능한 공동체성

코로나19라는 불청객 때문에, 온 인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백신 접종의 속도도 내보고,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등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언제 다시금 평온했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답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예정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히려 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반성과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던졌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개인의 삶과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인류의 문명과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본질을 되묻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 외에도 생태계의 위기 또는 기후위기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의 위험에 대해 얼마나 예견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개인의 삶과 인류의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YMCA가 추구하는 생명평화의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생존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는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YMCA가 추구하는 생명평화운동이다.

3) 비시장적 가치의 활성화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되면서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시장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존의 경제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기업이나 생활협동운동, 베틀시장, 지역 화폐운동, 공정무역, 지역 공동체 형성 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경제구조가 가지는 규모의 확장과 무한정의 이윤추구라는 굴레를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나누고 채우고자 한다. 상부상조의 협동을 통한 비시장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바로 YMCA의 생명평화운동이다(유현석, 2016: 6)..

이런 비시장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의 이념과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사회적 가치는 용어에서도 보이듯이 어느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기에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는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 강조되는 가치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가치이며,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된다(유두호, 엄영호, 2020).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진 개념인 만큼,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며 공공성의 개념과도 차이점이 크지 않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장용석 외, 2018). 또한, 재무적 성과와 같이 계량화된 지표로 측정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와 달리 사회적 가치의 경우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이승규 & 라준영, 2010).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를 강조하는 조직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한다. 사회적 기업을 대표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유두호, 엄영호, 2020).

교복물려주기 운동과 교복은행 활동 또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이끄는 활동이다. 또한 이로 인한 이익 창출도 지역사회 지원으로 환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Ⅲ. 교복재사용

1. 교복에 대한 개념정리

1) 교복이란

(1) 교복의 정의 및 일반적 특징

교복은 학교에서 수강생들이 입도록 정한 제복(표준 국어사전) 즉, 학생복이라 하며 여러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학문에 힘쓰는 일을 갖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의 위치와 계급, 소속감 및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다(교복의 역사). 교복은 학교를 표징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학생계급을 증명해 주는 상징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 자기의 내면적인 생각과 생활을 드러내 보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한미희, 2012).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일과 의복 재료, 색채를 맞춤으로써 학교에 맞는 상징성과 신분에 맞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내도록 디자인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적합하도록 몸 전체의 외관적 형상과 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하며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교복은 학생 의복 비용의 감소와 위화감 저하, 탈선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지며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인식되며 동료들과의 소속감 고취를 가져오는 일종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한우신, 최정욱, 2018). 국내에서는 1886년 이화학당에서 최초로 교복을 입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학생 교복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학생들의 개성과 민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983년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으나 학생 간 위화감 조성, 가정 경제의 부담, 학생 생활지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2년 만에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 교복과 자유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수아, 2015).

교복은 2000년대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내세운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교복

의 등장으로 한 벌의 가격이 대략 70만원까지 책정되며 빈부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2012년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전문브랜드’에 대한 인식조사(Macromillembrain, 2012)에서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준다.’,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에 높은 동의율을 보인 것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고가의 브랜드 교복에 대해 가지는 상반된 인식으로 인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소통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서지민, 이지연, 박명자, 2011).

2) 우리나라 교복의 변천사

(1) 조선시대 (1866~1910)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패션은 전통적인 한복 패션이었다. 일련의 개혁, 개방을 거치며 관복이 간소화되고 흑색으로 통일되었다. 한복이라는 이름의 우리 복식 문화가 서양 복식의 유입으로 이른바 양장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다. 양장은 개화기 신여성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통치마에 긴 저고리로 활동성이 개선된 개량 한복이 크게 보급되었으나 농촌의 부인들은 전통적인 한복을 고수하였다(한국 패션 변천사 100년의 시대적 흐름, 1996~200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교복은 1886년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에서 최초로 붉은 목면 소재로 만든 치마저고리로 위, 아래가 같은 붉은색의 한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홍동이’ 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는 치마와 저고리의 색을 서로 다른 것으로 입는 것이 공동체의 계통 사상이었는데 위, 아래 같은 색의 이화학당 교복은 매우 이색적이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벽을 너머로 볼 정도로 이질시 되었다(유수경, 1990).

그렇지만 학생 수가 늘어지면서 양가의 나이든 며느리나 과부들도 학당을 드나들게 되자 더 이상 붉은 교복을 강제로 요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1890년대 이화학당 여학생은 귀밑머리와 짧은 저고리 모양에 특히 치마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의 치마허리로, 한복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1902년 자기 집에서 의복을 마련해 왔고, 노학생들은 옥의 빛깔과 같은 흐린 초록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착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학생 교복은 1907년 숙명여학교의 교복으로 한복의 형태를 벗어나 자주 빛 서지 옷을 짓는데 쓰는 천으로 된 원피스에 분홍

색 안감을 댄 모자를 곁들인 서양식 정장교복이었다. 현재 간호복과 유사한 형태의 유럽식 복장으로 당시 너무 이질적 이어서 사회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양은진, 2013).

(2) 일제강점기(1910~1945)

일제 강점기에는 대표되는 전통한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1910년대에는 국민복이 강요된 시기로, 여성들에게 몸빼 바지와 간호사복 같은 간단복이 전형적인 의상이 되었다. 몸빼 바지는 여성 최초의 바지패션으로 현재까지 입혀지고 있다(한국 패션 변천사 100년의 시대적 흐름, 1900년~2000년대). 여성사회의 순화가 가능하고 일제 교육의 부당함을 깨달은 학생들은 항일운동 대열 및 사회참여로 교육평등을 지향하였다. 이 시기의 변화된 여학생 제복은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지며, 치마 길이는 짧아지면서 블랙의 짧은 통으로 지은 치마가 등장하게 되었다(한미희, 2009).

1920년대에는 독립운동의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신교육의 확대와 교육 운동이 여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근대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 생활 문화 전반에 근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복의 개량 운동이 일어났다. 개량된 한복 형태를 살펴보면 저고리의 길이는 길고 치마 길이는 조금씩 짧아지는 동향을 보였고, 넓게 잔줄을 잡은 통으로 지은 치마가 유행하였다. 당시 교복이 흰 저고리에 블랙 치마로 일치되게 맞춤으로써 치마 밑단의 여러 가지 모양의 패턴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패턴을 새긴 휘장으로 각 학교 개성과 특색을 나타내고자 하였다(한미희, 2009). 1930년대 여성 교육은 신여성층이 양적으로 팽창하여 여성 교육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학생 제복은 일본제국의 강요에 의해서 옷차림과 머리모양이 서양식으로 바뀌었으며 대체로 셔츠 모양의 윗옷, 털실로 두툼하게 짠 상의, 세로로 주름을 많이 잡은 치마, 해군복인 세일러복, 타이, 머리에 쓰는 물건 등이 있었다(근대 100여 년간의 우리나라 교복 변천사).

(3) 교복 획일화 시기(1945-1982)

서구 패션 유행의 빠른 유입으로 인해 일반여성보다 여학생의 옷차림이 한국 여성의 복식사를 이끌게 되고 신교육을 받은 여성층이 사회적으로 유행하면서

각 학교의 사상을 계승하며 서서히 변화되어갔다(강지영, 2013). 1951년 교육법 개정으로 각 학교 자율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이 제정되었다(김영옥, 2012). 여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동복으로 윗옷의 앞섶에 두 줄로 단추가 달린 서양식 의복, 넓은 나팔꽃 모양으로 퍼져 천연적 잔줄이 잡히는 스커트와 밑이 느슨하고 헐렁한 서양식 바지를 입었는데 흰색 직물의 하나인 명주실로 만들어 뽀뽀하게 풀을 먹여 덧붙여 달아서 입었다(조은정, 2003). 1969년에는 중학교 평준화에 따라 학교별 특수한 성질을 없애기 위해 교복 단추에서 모자에 달하기까지 학생의 형상을 균일화했다. 여학생 교복은 상의는 허리를 박스형으로 고치고 여름 스커트는 어두운 남색 얇은 천으로 정하고 겨울에는 두꺼운 스커트를 착용하도록 제정하였다(양은진, 2013). 1970년대부터는 학교의 교복을 유채색으로 디자인도 숙녀복 맵시로 점차 변화하여 교복의 소재도 숙녀 옷을 짓는데 쓰는 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조은정, 2003). 그러나 1970년 중반부터 일제의 잔재 중 하나인 교복이 학생의 개성 신장에 방해가 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교복 착용 반대 논리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문교부에서 교복 자율화 조치의 효력이 나타나며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복 지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중 의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한미희, 2009).

(4) 교복 자율화 시기(1983-1991)

교복 자율화 실시는 학생들 개인의 특성을 살려주고, 민주 의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평상복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학생들 사이의 브랜드에 대한 잘못된 선호 행위로 인해 교복 착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교복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높아지고 교육 종사자 및 개인 활동의 필요성으로 인해 1986년 2학기부터 교복 자율화 조치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복 착용 여부와 교복의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한미희, 2009). 1990년에는 문교부에서 교복 착용을 건설적으로 권장하게 되어 중학교의 38.5%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74.3%로 급증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게 되었다.

(5) 교복 개성 시기(1991-현재)

1990년대부터 학교에서 착용하는 교복의 수가 점점 증가하였고, 2000년 당시 중앙행정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여학생의 96.4%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양은진, 2013). 교복 시장도 교복 착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성장하였고, SK,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교복 시장에 참가하게 되면서 교복 브랜드화가 진행되었다. 교복 재 착용 초기에는 소속감과 통제성, 활동성을 목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선과 라인, 색 자체가 갖는 고유의 특성, 소재 등에서 서로 다르지 않아서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문지현, 2011). 청소년들은 교복을 자기 표현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복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심미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만족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획일적이고 개성이 무시된 부정 인식이 더 커졌다. 지금은 청소년들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획일적인 교복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체격에 나타나는 특징과 스타일,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성질이 증대되고 있다(양은진, 2013). 최근 각 교복 브랜드들은 실제로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코드에 마케팅 전략을 전적으로 다 맞추게 되면서 10대들의 우상인 유명 아이돌 스타를 중심으로 한 스타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한미희, 2014).

3) 교복과 YMCA

(1) 브랜드 교복 등장

1995년 교복 자율 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 값이 상승하였다. 이에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다. 2000년대 무렵 교복 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엘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2001년부터 교복 공동구매 지원 운동을 시작하였다(이윤기, 2022). 이 활동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교복값 거품 빼기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 경감과 소비자단체

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교육부 차원의 교복 공동 구매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2) IMF와 YMCA 녹색가게 등장

1997년 IMF의 국가부도 위기사태에 소비의 형태를 점검하고 자원절약의 실천 활동에 대한 고민 속에서 교복물려주기활동이 시작되었다. YMCA등대생협은 1998년 2월 평촌NC백화점(당시 뉴코아백화점)에서 교복물려주기운동의 시작으로 안양YMCA 녹색가게의 재사용과 재활용 운동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수원YMCA 1998년 수원YMCA녹색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자원재사용과 재활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2007년 수원YMCA회관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물려주기 활동을 수원YMCA 강당에서 연1회 행사를 개최했다.

(3) 청소년YMCA 인권운동

2008년 소고기 수입 반대와 4.15 교육정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등에 중고등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문제 중에는 두발 자율화, 교복 문제, 체벌 같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제였다. 특히 교복은 획일적인 교복에서 벗어나 교복의 자율화를 주장했다. 청소년YMCA 회원들도 두발자유와 교복자율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수원지역은 청소년YMCA회원이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적극 시행했다. 기존의 YMCA 청소년회원들이 존재하기에 홍보 및 수거에서 도움과 현장 진행 시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참여했다.

2. 교복재사용의 필요성

교복 재사용은 주로 비정기적으로 학교별 행사와 바자회를 통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교복의 재사용 비중은 높지 않다. 교복의 교환시장과 재사용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 공공단체의 재사용 행사가 활성화가 필요하며 종교, 민간 영리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소비의식개선과 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변인은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교사를 통한 모

방과 강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환경 친화적 생활을 보인다고 한다(김시월, 1998).

2019년 한 해에만 공장에서 버려진 폐의류만 67,514톤에 달한다. 의류들은 대부분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매년 12억 톤에 이른다. 심지어 버려지는 옷들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처리를 한다. 이 또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2021년 기준 약 600만 명의 학생이 있는 가운데, 그 많은 양의 교복들은 모두 졸업 후 옷장에 갇히거나 의류 수거함에 버려지게 된다.

그러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복을 누군가가 다시 쓸 수 있게 활용한다면 내가 만든 탄소의 82% 줄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 개인에게 지원되는 교복 한 벌 구매를 가격이 3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교복 물려주기 활동을 통해서 교복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지역 내 교복은행을 통해 구매하는 교복의 한 벌 가격은 3만 원 정도 되기에 가게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교복의 제작 생산에서 폐기되는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절감도 가져온다.

교복을 여러 벌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위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게 된다. 변기와 휴대전화에서는 평균 5.4 CFU/cm²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교복에서는 평균 520CFU/cm²의 세균이 발견되었다(정유미, 최명애, 2011). 교복이 변기나 휴대전화보다 96배나 많은 세균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의 위생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교복은 위생적으로 자주 세탁해 입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벌의 교복이 필요하다.

1) 청소년기 특성과 교복 만족도

청소년기는 신체 각 부분의 급격한 발달과 제2차 성장,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사춘기적 성장을 거쳐 아동의 체험에서 성인에 가까운 체형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이므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큰 시기이다. 교복은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3년을 착용해야 하므로 교복 만족도 및 외관은 맞춤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장혜경, 김인숙, 1999; 이소은, 2001).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

에게 의복의 기능성을 기초로 한 신체에 적합한 교복이 요구된다. 또한 의복의 만족도가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교복 제작에 있어 합리적인 치수 설정이 필요하다(원경해,2001).

교복 착용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치수의 교복 착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장 여분을 고려한 치수 체계가 필요하고 자신의 성장과 교복 착용감을 고려한 교복구매가 필요하다.

2) 교복가격의 변화

교복 가격에 대한 분포는 동복을 기준으로 현 교복 가격은 16-20만 원대가 69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21-25만 원대가 62명(28.1%), 11-15만 원대가 52명(23.5%), 26만 원 이상이 19명(8.6%), 11만 원 미만이 18명(8.6%)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적정가격으로는 11-15만 원대가 90명(40.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1만 원 미만이 70명(31.8%)으로 나타났으며, 16-20만 원대가 41명(18.6%), 21-25만 원대가 9명(4.2%), 26만 원 이상은 9명(4.1%), 기타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 교복의 가격으로 16-20만 원대가(31.2%)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맞춤 교복을 15-18만 원 가격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으며, 교복 적정 가격으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11-15만 원대가(40.9%) 나왔다. (이민경, 2019)

3. 교복재사용의 현황

1) 교복재사용시장 실태

현재 교복 재사용은 학생들로부터 작아서 입지 못하는 교복, 졸업생들의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 손질한 뒤 품목당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의 바자회와 구청 단위의 재활용 장터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녹색가게, 아름다운가게 등 의류를 기부 받는 곳에서는 중고교생들로부터 입었던 교복

을 기증을 받아 수선 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어 교복 기증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증 기쁨을 알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 지역구의 교복 재사용은 졸업, 입학철에는 학교들과 연계해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졸업생이나 옷이 작아져 못 입게 된 학생들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과 다림질 비용 1,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작아진 교복을 좀 더 큰 것으로 바꿀 경우 1대1 교환도 해주고 있다.

2) 교복 재사용 활동 경험

(1) 여벌의 옷 구입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교복 브랜드의 값비싼 교복구입비를 낮추고자 교복구입의 바뀐 현상이다. 그리고 무상 교복지원으로 인해 신입생들에게는 교복을 살 수 있는 지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복을 여러 벌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1벌씩을 구입할 수 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게 된다. 교복은 학생들에 매일 입어야 하는 옷이기에 옷을 바꿔가며 입어줘야 하기에 여벌의 옷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복이 필요하고 구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2) 유행에 따른 교복수선

학생들이 교복을 수선하거나 변형하여 입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유행에 따르거나 멋지게 보이려고 변형하거나, 부분적으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수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현은경 등, 2008; 김현화 등, 2009; 한미화와 이은희, 2009). 교복을 수선하거나 변형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을 하게 되고, 교복 변형 시 옷의 라인을 강조하여 폼을 줄이거나 길이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활동하기 불편하여 교복을 재구매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IV. 교복물려주기운동

1. 민간주도형 교복 물려주기 운동

1) 지역사례

2002년 교복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 YMCA,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복 공동구매 운동 전국네트워크'는 교복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실시했다.

수원은 2003년부터 수원효원고등학교와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이색졸업식의 활동으로 선후배 간 교복 물려주기 활동을 시작했다(문화일보.2003.2.11.자 보도).

서울 노원구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 장려를 위해 관내 52개 중고등학교 중 39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여 학교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으로 교복 관리 시설에 재투자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했다.

송파구의 '헌책 · 교복은행'에서는 기증받은 헌 교복을 세탁 및 다림질 비용만 받으며 단품 당 1,000원에 교복을 판매한다.

부천은 부천YMCA 녹색가게 부천 교복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내 중고등학교 교복의 동복과 하복, 체육복, 카디건 조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부천은 위탁판매와 무상 기증의 방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위탁판매 기간에는 판매금의 수수료 10%를 공제 후 은행에 입금해주고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은 교복은 상설매장에 무상기증 된다. 부천 교복은행에서 판매 금액은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증명서 지참 시 교복 한 벌을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2) 수원YMCA 사례

(1) 시작

2007년도 수원YMCA 녹색가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작했다. 녹색가게는 1997년 수원지역 아나바다운동의 실천하기 위한 재사용 매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플라스틱 장난감 교환 활동, 수원YMCA 벼룩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자원 재사용 운동 실천하였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시작도 자원재사용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수원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시작 당시 80여 개 학교

에 달했다. (2022년 현재 101개 학교)그렇기에 수원지역 전체가 아닌 수원의 영통지역을 중심으로 3개 중학교(태장중, 영동중, 영통중)와 2개의 고등학교 (영덕고, 태장고)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협조적이지 않았기에 주변 학교 대상으로 졸업식 기에 맞춰 학교 교문 앞에서 교복 수거를 당일에 진행하거나 사전 홍보 전단을 배부하여 교복 수거에 대한 안내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5개 학교 중심 아파트 단지 내에 교복 수거함을 설치하여 교복을 수거 활동이 진행됐다.

(2) 교복수거 품목

교복물려주기운동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그해 동복과 하복으로 나뉜다. 동복은 재킷을 비롯하여 조끼, 긴팔 셔츠, 긴팔 블라우스, 바지, 치마 등이다. 하복은 반소매 셔츠와 블라우스, 바지, 치마 등이며 최근에는 생활복이 제작되어 셔츠나 블라우스 대신에 생활복을 더 많이 찾는다.

이런 교복 외에 체육복 수거도 함께 진행된다. 학교생활에서 교복만큼 체육복이 체육 시간만을 위함이 아닌 학교생활 내에서 유용하게 입기에 찾는 사람이 많다.

그 외에서 넥타이 등을 수거한다. 수원지역의 경우 바지와 넥타이는 색깔로 구분하고 자체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은 교복이라도 색만 맞게 되면 입을 수 있도록 참여 학교를 독려하고 있다.

(3) 교복판매가격

교복은 수거 후 세탁을 한 후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표 4>. 수원지역 교복판매가격

금액	품목
6,000원	자켓, 바지, 치마, 조끼
4,000원	생활복, 셔츠
2,000원	체육복 (상하 각각)
1,000원	넥타이

2. 행정주도형 교복물려주기운동

1) 경기도교육청 교복은행 실시

2012년 10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민주통합·성남1) 의원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교복은행 지원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군 교육청 교육장이 해당 시·군의 민간단체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의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표 5>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작아져서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
3. “교복은행”이란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민간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진행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2.27 조 4853>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지원청별 중학교·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조485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계획
2. 사업의 위탁여부
3. 그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단체 위탁) 교육장은 교복 물려주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군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은행 운영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연도 12월에 연간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회계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교육청 보고) 교육장은 민간단체에서 보고받은 사항, 자체적으로 운영한 교복은행 사업에 관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조(예산지원의 근거)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복은행 설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4511호,2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부 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생략.

2) 경기지역 교복은행현황

교복은행은 2012년 성남에서 (사)일촌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교복은행 진행 방식은 교복을 기증 받은 후 세탁을 통해 집중행사 기간을 통해 연 초에 진행한다. 판매된 수익금은 학교 장학금으로 환원된다.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후 교복은행의 운영 주체는 <표6>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표 6> 경기도 교복은행 지역별 운영주체

지역	운영주체
남양주	남양주교복은행 추진위
파주	파주YMCA
부천	부천YMCA
성남	(사)일촌공동체
안양	안양YMCA
수원	수원YMCA
평택	평택녹색소비자연대
고양	우림복지재단
시흥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화성	화성교복은행

3. 교복물려주기사업(교복은행)사례분석

1) 교복물려주기사업(교복은행) 개요

(1) 교복물려주기사업 사업근거 및 목적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한다.

교복물려주기사업의 목적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과 물자 절약 및 재활용 필요성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제고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단위 학교별 자체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복은행은 교육지원청 자체계획에 따라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등을 통해 교복은행을 운영하고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 현재 25개 지역 중 18개 지역운영중이다(2021년). 위탁단체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학교별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 교복 물려주기 및 교복은행사업 기관별 역할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 활성화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설명회 운영, 홍보 리플릿 제작, 학부모네트워킹 협의회 운영 시 홍보, 교복은행운영 활성화 협의회 설치 운영 등이다. 교복 물려주기 추진 미흡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교복은행사업운영에 필요시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위탁이 가능하며 소요 예산 사전확보 및 행정적 지원을 교육지원청이 진행한다.

단위 학교의 역할로 자체 계획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교복물려주기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복보관실 마련하고 교복물려주기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환경동아리 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한다. 3학년 초, 교복물려주기 서약 등 교복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모색한다. 특히 하복 같은 경우 동복을 입기 전 하복착용 종료 시기에 맞춰 하복을 적극적으로 수거하도록 한다.

(3) 교복물려주기사업(교복은행)의 마무리

교복은행은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기에 교복물려주기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학교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복은행에 참가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 소외계층 청소년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원지역 교복은행은 <표 7>과 같이 2014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참여 학교와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정리했다. 수익금 전액은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표 7> 교복은행을 통한 수익금과 활용

진행연도	참여학교	수익금	판매량
2014	24 개교	2,186,000 원	462장
2015	25 개교	1,572,000 원	323장
2016	35 개교	2,554,000 원	543장
2017	30 개교	3,623,000 원	748장
2018	30 개교	4,648,000 원	1,889장
2019	31 개교	4,900,000 원	2,225장
2020	31 개교	3,000,000 원	2,663장
2021	20 개교	3,000,000 원	1,417장

2) 수원교복은행

수원교복은행은 2014년부터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작하였다. 기존에 2007년부터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통 외에 수원의 4개 구를 중심으로 교복수거 활동 및 교복은행 사업을 전개하였다.

교복 재구매를 위해 한 매장에 오는 것 또한 탄소 배출 및 환경오염이라 생각하여 최대한 수원의 4개 구에 거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교복은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초창기에는 영통구에 수원YMCA를 비롯하여 장안구에 수원YWCA, 권선구에 서수원주민편익시설 팔달구에 수원환경운동센터랑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복수거에 있어서 대대적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교복수거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수원 전역에 교복을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초창기 교복은행은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에서만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 팔달구에는 한 학교만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교복은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수원YMCA 1층 녹색가게 공간을 활용하여 교복을 진열하고 녹색가게 봉사자들과 함께 수거와 판매 활동을 진행하였다.

수거된 교복 세탁을 위하여 지역 내 세탁협동조합 및 대형세탁업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 세탁을 진행하였다.

수원YMCA 교복을 보관하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녹색가게 공간에서 진행하는 판매 외에도 수거가 많이 진행된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복은행’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수원시청 청사 1층 로비를 빌려 교통의 접근성과 행정의 협조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 교복은행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혜를 거둬갈수록 참여 학교가 많아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회 및 학부모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수원YMCA를 통한 교복은행 진행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의뢰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교복을 수거하고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물려주는 학교 자체 활동으로 많이 전파되었다.

3) 수원교복은행 참여자 설문 분석

(1) 참여자 분석 개요

본 조사는 수원 교복물려주기사업(교복은행)에 더 나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교복 구매 방문자를 대상으로 2021년 2월과 10월 2회에 걸쳐 562명을 대상으로 교복은행 및 찾아가는 교복은행이 열리는 날 즉석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설문 분석에 사용한 응답지는 520장이었다.

(2) 설문 분석

① 참여자의 대상 분석

<표 8> 방문자 대상

대상 구분	인원(명)	비율(%)
학생	378	72.6
학부모	142	27.4
합계	520	100.0

교복은행 참여자는 학부모보다 학생의 참여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 실측을 통한 구매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 참여자의 교복은행 참여 경로

<표 9> 참여자의 교복은행 참여 경로

참여경로	인원(명)	비율(%)
온라인(카페, SNS 등)	84	16.3
지인소개(단체, 동아리 등)	222	42.7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	126	24.2
수원교육지원청 등 시정홍보물	58	11.3
신문, 방송 등 언론	28	5.4
기타	2	0.1
합계	520	100

교복은행 참여 경로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는 학우를 따라와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가 42.7%로 제일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 배포해준 가정통신문과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정보를 통해서 교복은행 소식을 접하고 참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③ 교복구매 이유

<표 10> 참여자의 교복구매 이유

참여경로	인원(명)	비율(%)
신체적 변화	278	53.5
추가 여벌의 옷	180	34.6
교복분실	58	11.2
기타	4	0.7
합계	520	100

교복구매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3.5%는 신체적 변화로 인한 교복의 사이즈가

가장 많았고, 34.6%는 여벌옷을 위한 구매 11.2%는 분실에 따른 재구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 증가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하반기 때 등교하는 학생들이 신체적 변화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교복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④ 교복의 주요판매품목 분석

<표 11> 주요 판매 품목 (복수응답)

품목	비율(%)
동복자켓	2.8
동복상의(셔츠)	10.5
동복조끼	6.6
동복하의	22
하복상의(셔츠)	12.6
하복하의	16.8
생활복	10
체육복	12.2
넥타이	6.5
합계	100

교복의 주요판매품목 중복체크를 통한 하의에 대한 구매율이 제일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허리 및 기장에 대한 변화로 구매율이 제일 높음을 참여자들의 의견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동복 재킷의 경우에는 겨울철 교복위에 롱패딩의 착용이 가능하기에 동복 재킷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 참여자들이 교복은행에 불편한 점의 의견 분석

<표 12> 교복은행 참여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복수응답)

불편사항	비율(%)
교복의 다양한 치수	49
홍보안내	11.4
교복가격	1.9
행사장 접근성	9.4
교복은행 운영시간	5.9
참여 학교 수	20.1
기타	2.3
합계	100

교복은행 참여에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교복 치수가 다양하지 못한 불편함이 49%로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20.1% 수원지역의 전체 학교에 비해 참여 학교가 다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다음으로 홍보에 대한 부족과 행사장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참여자의 불편함을 통해 먼저 교복의 다양한 사이즈 보유와 수원지역에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

⑥ 교복물려주기운동(교복은행)에 참여의사

<표 13> 교복물려주기운동 참여의사

대상 구분	인원(명)	비율(%)
참여	518	99.6
미참여	2	0.4
합계	520	100.0

교복물려주기운동의 참여에 대한 질문에는 99%가 교복물려주기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교복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학교와 더 적극적인 교복수거를 통한 교복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3) 현장 참가들의 대면의견

“전학을 오게 되어 교복을 사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복은행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라는 학부모 참여 소감도 확인했다. 손자와 함께 온 할머니께서는 “교복을 저렴하게 여벌로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소감을 통해 교복물려주기 활동이 경제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바지 사이즈가 없네요. 무릎이 많이 닳아서 해진 바지도 많아요.” 등 교복 수거 및 교복확보에 대한 필요성의 의견을 받았다. “우리 집에 남아 있는 교복 가져다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장롱에 그대로 둔 교복이 있어서 이곳에 기부해야겠어요.” 등의 보관하고 있는 교복을 활용하고 교복물려기 확대를 불러오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한편으로는 교복수거에 대한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4)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성장을 통한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교복의 재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요자보다 교복의 다양한 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복 재사용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복 수거에 동참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복 재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고, 참여 독려를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물려주기 위함에 기존에 입고 있는 교복도 파손되지 않게 착용해야 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교복을 원하는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과 안내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4. 수원교복물려주기운동 성과와 과제

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한 YMCA교복물려주기운동 성과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폐의류나 폐섬유를 재생하는 경우 필요한 에너지양은 신섬유로 만들 때보다 50%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물과 에너지, 오염물질 방출량과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여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다(대전광역시, 1993).

의류와 신발제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 온실가스 산업 배출량의 8%를 차지한다. 의류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2016년 기준 32억 9,000만t으로, 2030년에는 40억 1,0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인터내셔널 보고서).

교복은 의류의 일부분이나 교복 재사용의 활동으로 원자재 생산, 물류 이동, 교복 폐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를 감축시킨다.

교복을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의류양이 많아지면 결국 소각이나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 또한 의류를 소각 처리 시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그 피해 또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에너지원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의 실천적 사항으로 교복물려주기운동은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

(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교복을 재사용할 경우, 교복 쓰레기양을 줄이고, 새 교복의 생산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해 자원순환에 도움을 준다. 이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교복을 구매함으로써 가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법이 된다.

공동구매에서의 교복 평균 지원가격이 30만원보다 재사용교복의 구매가격은 지원금의 10%로 정도 되는 가격으로 한 벌 구매 가능하다.

폐기될 수 있는 교복을 수거하여 새롭게 리폼하여 새 상품을 만드는 창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버려지는 교복은 약 65만 벌이다(인사이트, 정치사회, 22년 4월 14일). 한 업사이클 업체는 버려지는 교복을 활용하여 가방 및 지갑 등으로 재활용해 11종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교복의 디자인도 각각 다른 업체라는 이점을 활용해 각 제품의 독자적인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활동은 은퇴한 어르신들을 고용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결국 제품의 재사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의 교복을 세탁하고 해체하는 등의 까다로운 과정들 때문에 상품의 가격은 높다.

(3) 협치

수원YMCA교복은행은 단순하게 YMCA만의 활동으로 멈춰있지 않았다. 교복물려주기운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기관, 교복업체, 학부모회 및 학생회, 그리고 지역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해왔다.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마을조직 및 소그룹 단위 마을공동체에 함께 흥

보하며 교복을 수거하였고, 교복 수거 후 크린토피아 남부지사 및 세탁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교복세탁을 하는 데 힘썼다. 교복세탁업체의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작업을 진행하였기에 더 많은 교복과 더 많은 장학금을 형성할 수 있었다.

지역의 민간단체는 수원의 4개 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 교복 판매의 접근성을 돕기 위하여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등 함께 협조하여 교복판매활동에 함께 기여하였다.

교복물려주기운동이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소비 외에도 지역사회에 함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관들의 협력과 협치의 좋은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① 경기도수원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비와 홍보활동의 지원
- ② 학교연계를 통한 학교 안에서의 교복물려주기운동 활동의 지속성 지원
- ③ 판매 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역유관단체들과의 지속적 협력
- ④ 교복업체선정을 통해 세탁물량 확보와 저렴한 세탁을 통한 경제적 협력
- ⑤ 수익금지원을 위해 지역행정복지기관, 학교와의 협력

(4) 복지

교복물려주기운동은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비싼 교복값을 저렴하게 또는 기증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일이다.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통한 교복은행의 수익금은 지역 또는 학교의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학생들에게 기부 받은 교복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순환구조를 통해 구입하는 누군가에는 재사용 참여이자 누군가를 돕는 기부의 활동이 된다.

(5) YMCA생명평화의 의미와 교복물려주기

교복물려주기운동은 YMCA가 추구하는 생명평화운동으로써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다. 버려지는 교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위기가 기후정의를 위한 실천이고 이것이 생명과 정의를 바탕으로 두는 YMCA생명평화 운동이다.

YMCA생명평화의 시민운동에서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교복물려주기 운동 또한 지구 안에 살아가는 사람, 환경, 사회 등이 서로 공존하며 상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적 행동이다. 버려진 의류가 다른 나라에 재사용 의류로 수출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태워지고 버려지는 것이 수십만 톤에 이르고, 그것이 또다시 환경오염으로 우리나라

에 바다와 하늘로 또다시 다가오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교복 한 벌의 재사용이 지구적 시각에서 생명평화의 실천 행동이다.

2) 교복물려주기운동 과제

(1) 교복디자인 변경

한번 디자인한 교복을 계속 같은 디자인을 고집할 순 없을 것이다. 교복디자인이 타 학교와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학교를 알리는 또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교복을 보고 어느 학교 학생인지 확인도 가능하다. 이러한 교복 디자인이 가진 의미는 다양하다.

그러나 교복물려주기운동을 위해서 디자인 변경은 큰 걸림돌이다. 매년 수거하던 교복이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그전에 받은 교복과 이미 수거한 교복들은 대부분이 폐기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입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신의 디자인을 원하는 만족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교복의 재사용을 위해 교복 디자인의 잦은 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교복변형

교복 변형을 너무 심하게 하면 교복 재활용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기 어렵다. 교복을 구입한 원형 그대로 입을 수 있으려면 학생들의 체형에 잘 맞는 치수가 다양하게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이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교복이 이미 지정되어 있어 디자인을 바꾸기는 어려우나,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치수로 교복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3) 학생회 또는 학부모회에서 진행하는 교복물려주기 활성화

교복물려주기에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는 자체학교에서 직접 수거하여 직접 판매하고 수익금을 자체 학교에 지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복을 수거하는 일, 세탁하는 일, 판매하는 일이 절대 순탄하지만 않다. 세탁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맡기는 일까지 모두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과거 수원YMCA가 진행 시기에는 학부모회가 수거에 동참하고, 수원YMCA가 업체를 선정하고 판매하는 활동도 녹색가게 자원봉사자와 학부모회가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후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교복을 수거하고 세탁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참여한 학교는 주기적으로 교복물려주기운동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

또 최근에 생긴 수원 광고 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회에서 직접 교복을 수거하고 물려주기 활동을 진행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자체 학교에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학생회에서 직접 진행했다. 이곳 학생회에서는 수원YMCA에 의뢰하여 교복물려주기운동의 운영 과정을 컨설팅 받아 진행하였다.

이처럼 자체 학교 내의 인력들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직접 해결한다면 더 많은 참여자와 더 많은 사람의 참여가 쉬워질 것이다.

(4) 교복업체와의 관계

교복을 구입하면서 교복업체는 매우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다. 과거 교복물려주기 운동함에 있어서 교복업체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저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기본 교복을 수거하면 문화상품권을 배포하는 식의 새 교복 판매에만 집중하는 문제를 보였다. 교복의 재사용을 방해하는 업체의 행태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업체에서는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남겨야 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일자리 측면에서의 이해를 요구했다.

이러한 업체의 행태를 비판해야 하면서 질 좋은 교복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진행해야 했다. 3년간 거의 매일 입어야 하는 옷이기에 질 좋은 재질로 오래 입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업체의 역할이다. 그래야 수거한 교복을 이후에 물려주기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복물려주기운동에 있어서 업체에 질 좋은 교복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구입하는 소비자와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하는 YMCA의 입장에서 지속성을 이루기 위한 과제이다.

V. 결론 및 제언

앞서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환경, 경제, 사회적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YMCA가 추구하는 생명 평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적 실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복을 통한 자원의 절약이 곧 기후 위기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활동임을 확인하였고, 지속가능한 소비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소비패턴과 합리적 소비에 대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교복물려주기 활동이 참여자인 청소년만을 위함이 아닌 결국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행정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행할 수 있는 운동임을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에 점점 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복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복은 활용한 리폼이나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그중 교복은 원단 품질과 봉제기술 향상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 때문에 재학 중에도 재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졸업과 함께 교복이 폐기되기도 한다. 기술의 발달과 품질의 향상으로 교복은 재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환경 의식과 친환경적 의생활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복물려주기운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교복 재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고 환경 의식적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친환경 소비의식과 소비 행동, 소비 가치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Homer and Kahle(1988)는 가치-태도-행동 모델을 제안하면서 가치는 태도 형성에 선행변수이고, 태도는 행동의 선행 변수로 제안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환경 의식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가치-태도-제도 모델을 제안하였다(Dembkowski & Hanmer-Lloyd, 1994). 따라서 교복 재사용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복 재사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소비의식 및 소비가치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 과정에서의 의생활 영역과 녹색 가정 생활영역이 친환경 소비의식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영역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과과정 속에서 교복 재사용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도 부합되는 실천이

며, 청소년들에게 환경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절약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통해 올바른 소비 가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친환경 소비의식, 소비행동, 소비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 또한 YMCA의 운동역할이라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친환경 소비의식과 소비 행동이 집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시된다.

셋째, 교복물려주기 활동이나 교복은행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교복 재사용의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 학생들은 교복 재사용 시장의 주체로 학부모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의 교복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학교-학생-학부모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겠다. 교복 재사용을 담당할 수 있는 자발적인 학부모 모임을 독려하고, 입학 시기 및 동복과 하복 교체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교복 재활용 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수거활동과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복 재사용 행사에 대한 홍보는 판매시기에 맞추어 학생들의 관심을 적절히 유도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동복과 하복의 착용 변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복물려주기운동 사례 연구를 통해 교복이 자원순환의 단순한 하나의 품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교복물려주기운동은 참여하는 소비자와 공급자는 YMCA운동이 모색하는 생명평화운동과도 연결된 중요한 실천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강지영. (2013). 교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여자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니트디자인학회지, 11(3), 61-71
2. 김영옥. (2012). 여고생의 교복과 헤어스타일의 선호도 및 선호도에 대한 이미지 영향. 한국니트디자인학회지, 10(3), 78-79.
3. 김하영. (2013). 중, 고등학생의 의복추구혜택과 교복착용 태도의 관계 및 교복착용 태도가 교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4), 47-61.
4. 조은정. (2003). Jean 소재를 이용한 여고생 교복디자인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5. 문지현. (2013). 포스트디지털 세대의 교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 이민경. (2019) 남 녀 중학생의 교복인식 및 착용실태조사.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7. 한국가정과학회지 (2014) 청소년의 친환경 소비의식, 소비행동, 소비가치가 교복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4. Vol. 26, No. 2, pp.1-141
8. 신희선. 오경화. (2009) 중고등학교 교복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9. 김재명 (2021) 한국개신교의 '생명평화' 운동과 사상-한국YMCA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81집3호, 한국종교학회. pp.79~106
10. 서승연, 신은미 (2011) 교복재활용 필요성과 교복 재활용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분석. 한국환경교육학회. pp. 54~69
11. 이정우,김지윤,박수희,서경화,신여울,안지현,양희순 (2014) 청소년의 친환경 소비의식, 소비행동, 소비가치가 교복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 김재명 (2021) 한국개신교의'생명평화'운동과사상-한국YMCA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중심으로
13. 장윤정,정순희,안창희(2008) 교복공동구매와 개별구매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가정과삶의질학회
14. 정연경(2019)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
15. 유현석(2016) 시민주도형 프리마켓을 통한 지역사회만들기와 YMCA역할-창원 길마켓 사례를 중심으로-, YMCA간사자격청구논문

16. 서지민, 이지연, 박명자(2011) 중·고등학생의 의복 동조 성향에 따른 교복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 복식문화연구 제19권 제6호
17. 수원YMCA(2021) 교복은행결과보고서
18. 서울시NPO센터(2021) 변화사례 아카이브 95화 교복물려주기 운동
19. 이윤기(2022)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 : 마산YMCA 시민중계실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70~171
20. 한우신, 최정욱(2018) 국내 여중생을 위한 교복디자인 및 패턴개발, 패션비즈니스 제22권 4호 p.3
21. 유두호, 엄영호(2020)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2020년 제10권 제3호 p.59-92